

방송예술가

글. 송주호
방송과기술 편집장

모든 사람은 표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소리를 내거나, 몸짓 손짓을 해가면서 이 욕구를 해소합니다. 표현할 것이 없다면, 그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글을 쓰지도 않을 것이고, 그림도 그리지 않겠죠. 몸도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모방하지 않음으로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대상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가는 이러한 남다른 표현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일상에 쫓겨 놓칠 수 있는 것들, 혹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감지하고, 이들을 표현하여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욕구. 이것은 분명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독특한 감각이고, 또한 독특한 욕구입니다. 이것이 예술가를 만듭니다.

저는 좋은 예술가는 이러한 자신의 감각과 욕구에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욕구를 감지하고, 글이나 그림, 몸짓, 소리 등 자신의 재능과 숙련된 솜씨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감각하고 어떠한 욕구를 가져야 한다는 당위나 의무는 없습니다.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전혀 동떨어진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잘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휘되는 솜씨는 전통적일 수도 있고, 새롭게 개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말하고 싶은 대상이나 욕구가 없다면, 혹은 자신의 솜씨가 그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예술가로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고 개발해야 합니다. 이때 무엇을 말해야 한다, 어떤 솜씨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당위나 의무에 자신을 속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진정성이 확보됩니다.

저는 방송에 임하는 사람들 또한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음향은 소리의 예술이고, 조명은 빛의 예술이며, 영상은 미디어아트입니다. 편집은 큐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방송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감각과 욕구에 솔직하고 숙련된 솜씨로 이를 표현한다면, 콘텐츠는 더욱더 매력적이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PD나 작가만의 작품이 아닌, 조명감독, 음향감독, 영상감독, 편집감독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송예술가들이 늘어날 때 새로운 방송의 시대를 이끄는 거대한 흐름이 생길 것입니다.

방송과기술 편집부



방송과기술 편집장
송주호



OBS 김영광



아리랑국제방송 안재선



SBS 강동민



TBS 이봉근



MBC 박두경



EBS 이용학



KBS 조원현



BBS 박진용



YTN 이한배



KT스카이라이프 김희동



CBS 김준규



기자 이진범

방송과기술

BROADCASTING & TECHNOLOGY
Vol.299 2020. 11

발행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0층
Tel. 02-3219-5635~42 / Fax. 02-2647-6813
www.kobeta.com / E-mail. kobeta@naver.com

발행인 변철호 **편집인** 기정모 진신우 김종기
김정용 신동훈 한성주 최충환 손근선 심영우
김은식 박치규 김효신 객재호 천대성 장해완
안의섭 강태구 김동현 김창원 김경태 박진수
고종국 김성찬 황인규 박태형 **편집장** 송주호
편집위원 조원현 박두경 강동민 이용학 김준규
박진용 이봉근 안재선 김희동 이한배 김영광
편집·취재기자 이진범 **편집디자인·인쇄** P3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9 유삼빌딩 3층
Tel.02-3141-2760 / Fax.02-3141-5569

회원사 KBS MBC SBS EBS CBS
YTN kt skylife arirang BBS
KFORCE MEDIA TBS OBS X TBN MBN TBC
CJB KNN kbc G1 JIBS TTB JT TV
WBC NATV WDS MBN

구독 신청

- 방송과기술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한 후 전화 혹은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 과월호 구입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6개월 5만원 / 1년간 9만원 / 2년간 17만원
- 계좌: 신한은행 100-030-515021
(주)월간 방송과기술 (예금주)
- Tel.3219-5635 / Fax.2647-6813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안내문 발송
- 과월호 방송과기술 PDF 열람 가능
- KOBA(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
무료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KOBA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 등록 시 할인 적용
(구독 권수에 한정)
- 기타 본 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원고 기고 및 광고 문의

- Tel.02-3219-5642 (사무국)
- E-mail. jnb1001@nate.com

월간 방송과기술 홈페이지

tech.kobeta.com

